



“엑스포 성공 합시다”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박준영 도지사(28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 지사는 여수엑스포를 위한 반 총장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엑스포 성공적 개최 후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해양이나 환경 등의 국제회의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기초생활수급제 시행 10년 허실

복지업무 떠안은 지자체 재정난 가중

광주·전남 17만여명 전국 수급자 11%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확대 문제

다음달 1일로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생계를 이룰 수 없는 국민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국가가 최소한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그러나 국가가 맡아야 할 이 같은 사회복지업무를 재원 대책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이양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국민층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또 지역 내 수급자들이 국민층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고착화하고 있고 그 수가 증가 일로라는 점도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수급자 159만명 중 11%가 지역민=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급가구 88만2925가구로 2008년의 85만4205가구보다 2만8720가구가 증가했다. 2001년 69만8천757가구 불과 8년 사이 20여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수급자 수로 보면 지난해 156만9000명으로 전년의 153만명보다 3만142명 늘었다. 수급자는 2001년 142만명에서 2005년 15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가정 해체, 빈곤, 실직에 따라 국민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수급자는 각각 6만5195명, 10만8679명으로 모두 17만3874명에 달해 전국 수급자의

11.08%에 해당한다. 전국 인구 대비 광주·전남 인구비율이 6.6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내 국민층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취약계층이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층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부정수급 단속 등 적정급여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 완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의무 지방에 떠넘겨=제도 도입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실시 명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원 대책 없이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 까다로운 선정 과정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국민층인 수급자의 비율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광주·전남은 사회복지예산에 따른 재정 압박이 한계치에 접어들었다.

이달부터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인건비와 필수불가결한 사회복지비 마련을 위해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했으며,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도 32%에 이르고 있다.

수급권자 외에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도 적지 않지만 실제로 통계에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외에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 자치단체의 형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전국적으로 200만가구 4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수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이 60만가구(100만명), 자산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계층은 100만가구로 예상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국비 지원 예산도 빠듯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 힘들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법 보완 및 개정 운동 착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사

각지대 빈곤층 200만 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라는 주제로 10주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도개선요구안과 개정 청원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초보장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빈곤 심화, 비수급 빈곤층 확대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수급 빈곤층이 410만 명에 달하는 등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을 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적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이 제도가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안은 시민단체인 기초생활권리행동의 주최로 기초생활수급자 280명을 비롯한 시민 등 전체 1702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를 세계 문화외교 중심지로”

亞문화중심도시 조성국 발원 세미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국 발원 세미나가 28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박 지사는 여수엑스포를 위한 반 총장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엑스포 성공적 개최 후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해 해양이나 환경 등의 국제회의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아시아 평화예술의 도시, 미래형 문화경제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화도시 건립은 아름다운 조형물 및 자연환경뿐 아니라 변화 수용하는 인간과 문화적·제도적 장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자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은 인권·민주주의·평화를 기립과 동시에 광주지역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역사적인 유산으로서의 남도문화의 진수를 담아내야 하며 인종·종교·문화·경제 등 고도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안고 있는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의 힘으로 갈등적 지역주의를 생산적 지역주의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지역주의로 모든 지역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제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신지역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화적 지역주의의 산실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한 문화대국으로 일어서고 갈등적 지역주의를 문화적 지역주의로 승화시키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송암산단 문화콘텐츠 허브 22억 전남, 슬로시티 명품길 조성 사업 24억

광주시·전남도 내년예산 반영 신규 사업

2011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광주시 주요 신규사업은 크게 연구개발(R&D) 분야와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광주 연구개발(R&D)특구 육성 예산이 대구와 같이 50억원이 확보되면서 특구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 가능해졌다. 첨단·하남·진곡 산업단지외 광산 두정지구, 장성 3리벨트 일대 등 모두 5200만㎡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될 예정인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미래성장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후한 송암산단을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2억원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송암산단 내 들어설 CGI센터 장비 구축비 20억원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송암산단을 문화산업 콘텐츠 허브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 유

해 추진했던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의 경우 전체 예산 1200억원 중 기본 설계비 12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슬로시티를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24억원도 확보하게 돼 명품길 조성 및 슬로라이프 체험존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전라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라믹원료소재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세라믹 원료소재산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20억원도 확보해 향후 전남 서남권의 세라믹 원료소재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매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강진·고흥·목포·순천 등에 친환경 장사시설을 만들고 인근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데 90억원이 반영된 것도 눈길을 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州日報 문화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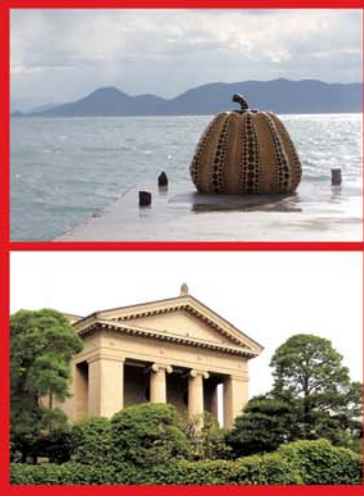


세계 최초로 땅속에 지어진 나오시마 지추(地中) 미술관 내부 모습

예술의 낙원, 日 나오시마섬으로 떠나요!

10월 1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40명 모집

여름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일보사와 (사)광주미술회(회장·김용서)가 함께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낙원으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 지추(地中)미술관 일대 문화여행을 떠납니다. 나오시마 섬(直島)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땅속에 미술관과 호텔을 설계한 독특한 컨셉으로 유명해진 곳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글로벌 모데, 앤디워홀 등 거장들의 명작이 한데 어우러진 미술관 벨트는 작고 외진섬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기적의 현장입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떠난 빈집을 예술가들의 창작촌으로 작품화 해 섬 전체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하우스 프로젝트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3박4일간의 여정에는 최근 나오시마 지추미술관에 개관한 이우환 미술관을 비롯해 피카소, 르노와르, 세잔 등 화려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오하라 미술관과 다카마쓰 시립미술관, 쿠라시키 미관지구 등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거장들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문화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여행일정

- 10월22일(금) ▶ 광주에서 인천공항이동 / 다카마쓰로 출발 / 다카마쓰 도착후 시내이동 / 다카마쓰 시립미술관 관람
- 10월23일(토) ▶ 다카마쓰항으로 이동 / 웨리로 나오시마 이동 / 나오시마 지추미술관 / 이우환 미술관 / 이에 프로젝트 투어 / 오카야마로 이동
- 10월24일(일) ▶ 쿠라시키 미관지구 / 오하라 미술관 / 고라쿠엔 정원 / 오카야마성 / 히로시마로 이동
- 10월25일(월) ▶ 히로시마 공항으로 이동 / 인천공항 도착 / 광주로 이동

주 최 광주일보사 (사)광주미술회
주 관 하나투어 유니버스항공
접수·문의 (062)522-2255
참가비 145만원
후원 일본오카야마현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